

부분무치악케이스의 심미적고려

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부교수/조성암

부분 무치악케이스에서의 심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서는 종래의 Conventional Type의 임프란트지대치에서 보철물변연을 치은 연상에 위치하도록 한 Supragingival margin을 Subgingival margin으로 하여야 한다. 그림:240

이처럼 보철물의 변연을 치은연하로 하기위하여서는 종래의 보철물내부구조(골드 시린더)로는 어렵고 내부구조를 바꾸어야한다.:그림 241.

그림 241에서 보면 종래에는(A), 임프란트지대치(가)와 골드시린더(나)가 서로 마주보는 관계이었다. 보철물의 하방경계는 골드시린더의 최하방에서 2-3미리의 상방에 놓이게 되므로 임프란트지대치(가)의 티티늄이 보이게 된다.

티티늄이 보이게 되면, 티나늄의 금속 색깔이 심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.

이 티나늄금속색깔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골드시린더로 임프란트지대치를 덮어야한다. 이렇게 하기위하여 그림의 B에서 보면 골드시린더와 임프란트지대치의 모양을 원추형인 Conical Type로 바꾼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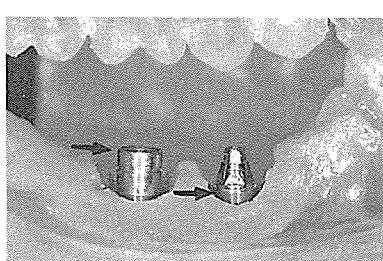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4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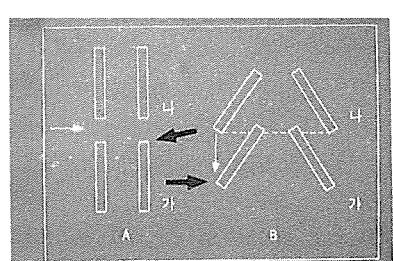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4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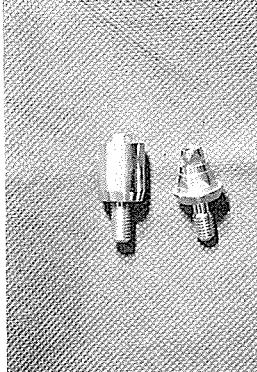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4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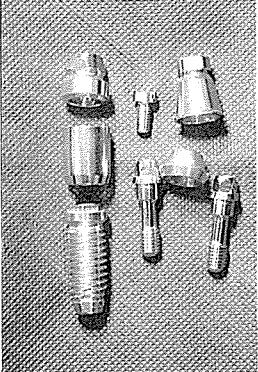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43



그림. 24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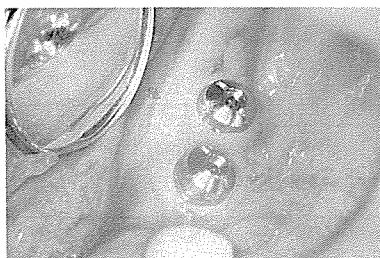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4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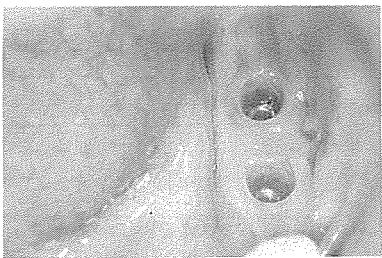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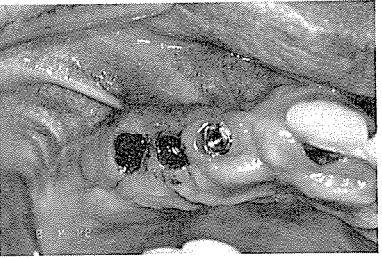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47

그림 242에서 종래의 지대치와 Conical Type의 임프란트지대치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.

그림 243: 임프란트픽스쳐와 지대치의 전체적인 비교를 볼 수 있다.

대개의 구치부에서 이 Conical Type의 임프란트는 치은연하 1내지 2미리에 보철물의 경계가 놓이도록 권장하고 있다.

Oral Hygiene을 철저히하여 치은의 염증을 예방하여 치은의 퇴축가능성을 줄여야한다.

그러기 위하여서는 coverscrew를 제거하고(그림 244) Healing Abutment를 끼운다음(그림 245, 한달이상(약 4-6주)을 기다려 임프란트지대치주위의 연조직이 완전히 healing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. (그림 246) 충분하지 못한 연조직의 healing은 자칫 불필요한 bleeding을 가져와, impression taking procedure에 많은 곤란을 겪게 만든다(그림 247).

그림 248: 대개 인상채득전에 보철물의 변연을 치은연하 2미리로 집어넣기위하여 임프란트픽스쳐의 6각머리의 shoulder부위에서부터 치은까지의 길이를 재어서 그 길이에서 보철물의 변연이 치은연하 2미리정도로 들어가도록 지대를 선택한다.



그림. 24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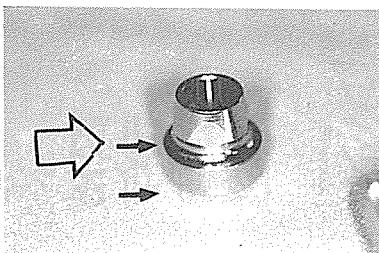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49



그림. 2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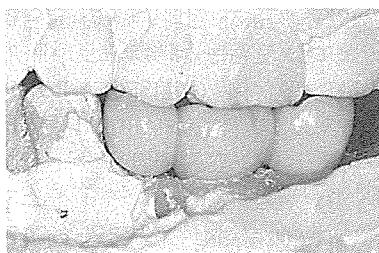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5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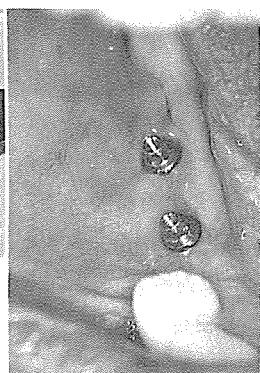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5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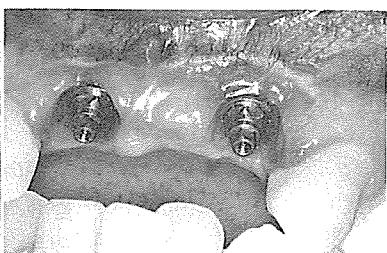


그림. 253

그림 249; 측정한 길이에서 약 2mm정도를 빼면 환자의 임프란트피스처에 장착할 임프란트지대치의 길이가 계산된다.

그림 250; 대개는 4-6주에 잘 healing되지만 인상체득시에 여간 주의하지아니하면 쉽게 Bleeding이 될 수 있다.

그림 251; 5번이후의 구치부인 경우 환자가 미소를 짓는다던가 하는 기능적인 동작에 보철물의 변연이 잘 보이지 아니한다.

막상 인상을 채득하다보면 이러한 치은의 출혈이라던가, 변연의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Subgingival Margin treatment가 꿔이나 까다로운 작업이다.

더구나, Unattache Gingiva인 경우에는 치은의 퇴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구치부인 경우는 보철물의 변연을 치은높이에 맞추는 것이다(그림 252).

시술의 간편과 더불어 건강한 치은상태의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.

그림 253; 전치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치은연하로 작업을 해야하는것이 구치부와 다르다.